

# 지지 않는 별, 당신을 추억합니다

### 39세 요절 여수출신 천재화가 손상기 평전 출간 27일 출판기념회·전시회 기획...기념관도 추진



故 손상기

“사라진 자리에도/ 그림자로서 있는/ 바늘 빛이 있지만/ 폐품된 이야기를 지우며 간다// ...종락// 건널목 사이에서/ 혈관끝에 빛나는 신호등/ 빛겨지고 빛겨어 다스리는 소리/ 그대는 타오르라 타오르리라/ 빛나는 별을 보아야 한다.”(손상기-자라지 않는 나무)

39세의 젊은 나이로 요절한 여수 출신 천재화가 손상기(1949~1988년)는 ‘한국의 로트렉’이라 불린다. 그는 어린 시절 앓은 구루병 때문에 ‘자라지 않는 나무’가 됐다. 척추만곡이라는 불구의 몸과 가난이 그를 평생 따라다니며 괴롭혔다.

그는 스스로를 ‘외봉낙타’라고 부를 만큼 당당했다. 그는 어떤 유과에도 휩쓸리지 않고 독자적인 회화세계를 구축하면서 불굴의 예술혼을 피웠다. 한참 왕성하게 활동할 시기에 그는 안타깝게도 폐물혈성 심부전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오늘날 우리 화단은 그를 감히 ‘빛나는 별’로 부른다.

손상기 화백 작고 25주기를 기념해 손상기기념사업회(회장 김홍용)와 여수시 그리고 유언에 따라 그의 작품을 관리하고 있는 샘터화랑이 그의 불굴의 삶과 예술세계를 조명할 평전 ‘손상기의 삶과 예술-빛나는 별을 보아야 한다’(사문난적 펴냄)를 출간했다. 부제 ‘빛나는 별을 보아야 한다’는 손상기의 자작시 ‘자라지 않는 나무’의 마지막 구절이다.

이 책은 손상기의 작품 세계를 총체적으로 조망하기

위해 변종필, 서영희, 서성록, 장준석, 김진엽 등 미술 비평 전문가 5명이 공동 집필했다. 변종필은 기존 연구물과 유족들의 인터뷰를 통해 손상기의 삶과 회화를 체계적으로 조명했고, 서영희는 손상기의 회화를 학술적 측면에서 분석했다.

손상기기념사업회는 오는 27일 여수 진남체육관 평생학습관 3층 강의실에서 출판기념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손상기 화백 작고 25주기 전시회도 준비 중이다. 올 하반기 여수 주요 전시장에서 손상기 화백 기념 전시회를 열면서 후배들의 미술전도 개최할 계획이다.

고향 여수에서 손상기 기념관 건립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손상기기념사업회 박치호 사무국장은 “손상기 화백의 기념관 건립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여수시와 기념관 건립에 관한 사항을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념관 건립 계획이 세워지면 손상기 화백의 작품과 유물 대다수를 소장하고 있는 샘터화랑 측에서도 구두상으로 일부 작품과 유물을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다”고 덧붙였다.

드라마 보조작가로 일하고 있는 손상기 화백의 딸 손세린(35)씨는 “고향에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셔서



평전 표지



‘시들지 않는 꽃’

감사하다”며 “하지만 고향에 아버지 기념관이나 미술관이 없다는 것은 딸의 입장에서 아쉬운 측면”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라고 나니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가족들을 책임지며 창작활동 진행한 아버지의 고단했던 삶이 느껴진다”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손상기 작품 경매시장 블루칩 작년 낙찰총액 10억5490만원

손상기 화백의 그림들은 미술시장에서 블루칩으로 통한다.

지난해 10월 세계 미술시장 분석회사 프랑스 아트프라이스가 발표한 ‘2012 세계 미술품 경매 낙찰총액 기준 Top 500’에 따르면 손상기는 낙찰 총액 10억5490만원을 기록하며 국내 작가 중에서는 최고 순위인 155위를 차지했다. 지난 2011년 분석 때는 531위였다. 최고 낙찰가는 1억7260만원이었다.

대한미술사감정협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2 주요작가 KS 호당가격지수’에서도 손상기 작품 평균 호당 가격은 405만원으로 조사됐다.

도심 번두리 삶을 그린 ‘공작도시’ 시리즈는 그의 작품들 중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공작도시- 능선의 작은 집들’(60.6 x 72.7 cm·1987년 작)은 지난해 3월 K옥션 경매에서 1억2500만원에 낙찰됐고, ‘공작도시-우.후’(71 x 89cm·1983년 작)는 지난해 4월 경매에서 1억500만원에 팔렸다. 지난해 9월 경매에서는 8호짜리가 9700만원에 낙찰, 호당 가격 1213만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김경민기자 kki@

## 고달픈 문화예술인들

#### 창작활동 실태조사...전체 66% 월 수입 100만원 이하

문화예술인의 66.5%가 창작 활동과 관련한 월 평균 수입액이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학 분야의 경우 무려 91.5%가 월수입이 100만원 이하라고 밝혀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14일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여건 등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한 ‘2012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문학, 건축, 미술, 대중예술 등 10개 분야별로 200명씩 총 2000명의 예술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창작 활동과 관련한 월수입이 아예 없다고 답한 사람은 26.2%에 달했고 20만원 이하가 12.3%, 21~50만원 사이가 12.9%였으며 100만원 이하는 66.7%였다. 200만원 이상을 버는 사람은 16.7%에 그쳤다. 개인 부가활동을 포함한 월 평균 수입 100만원 이하는 29%였다.

계별 장르별로 월급 편차도 심했다. 100만원 이하의 경우 문학이 91.5%가 가장 많았

으며 미술과 사진이 79%로 뒤를 이었다. 그밖의 순위는 연극(74%), 영화(71%), 국악(67%), 무용(64%), 음악(60%), 대중예술(43.5%), 건축(34%) 순이었다.

4대 보험 관련 통계도 나왔다. 건강보험 가입 비율은 97%, 국민연금 가입 비율은 66.7%였으며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율은 27.9%와 30.5%로 낮았다.

설문 결과 창작 지원금 수혜폭은 늘었지만 창작활동 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창작 지원 수혜비율은 공공·민간영역을 합쳐 31.9%로 지난 조사였던 2009년에 비해 15.5%가 늘었다.

하지만 사회적 평가, 창작 발표 기회, 외부의 창작 활동 규제 등 창작 활동의 여건과 만족도는 2009년 조사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창작 지원금 및 매개 공간 지원, 창작팩토리 지원 사업 확대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권서경

최중안

김종휘

## 천원으로 행복한 문화충전

#### ‘천원의 낭만’ 18일 문예회관

‘행복한 문화 충전-천원의 낭만’ 2월 행사가 오는 18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Love is’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음악회는 남성 성악 그룹 ‘유엔 보이즈’와 함께 한다.

뮤지컬, 영화음악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음악을 선보이고 있는 유엔 보이즈는 이탈리아 파비아 콘서바토리, 밀라노 아카데미에서 수학한 후 이탈리아에서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등에 출연한 테너 권서경

씨가 리더를 맡고 있는 그룹이다. 또 서울대 성악과 출신인 바리톤 최중안, 연세대를 거쳐 이탈리아 도니제티 아카데미에서 공부한 테너 김종휘씨가 멤버로 활동 중이다.

이들은 이날 음악회에서 오페라 ‘카르멘’ 중 ‘내가 던진 이 꽃은’, 팝송 ‘A love until the end of time’, ‘Perhaps love’등을 선사하며 이벤트도 준비했다.

(사)아시아공연예술위원회가 진행하는 ‘천원의 낭만’행사는 지금까지 37회 열렸으며 매월 둘째주 월요일 시민들을 찾아가는 문의 062-226-2032, www.gjasia.org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미술관 계단 예술이 되다

#### 강운·송필용 작품 이미지 작업 ‘미술관 사진공모전’

‘계단을 오르면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 들어요.’

광주시립미술관이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미술관 계단에 지역 작가들의 작품 이미지를 입혔다.

시립미술관은 최근 본관 1층 제1전시실 입구에서 2~3층으로 오르는 계단에 서양화가 강운씨의 ‘순수형태-생동’(2009년 작)을, 2층 제3전시실에서 3층 제5전시실로 오르는 계단에 1층 로비에서 2층 세미나실로 이어진 계단에는 송필용씨의 ‘흐르는 물처럼-생명의 순환’(2007년 작)과 ‘흐르는 물처럼-금강산수’(2006년 작·사진)의 이미지를 각각 입혔다.

미술관은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계단 작품 이미지를 배경으로 촬영한 사진들을 공모하는 ‘미술관 사진공모전’을 개최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은 촬영한 사진을 미술관 웹하드(www.webhard.co.kr) 사진공모 폴더에 올리면 된다. ID와 비밀번호는 각각 gmaevent와 12345678이다.



공모에 선정된 사진은 4월9~28일 미술관 1층 로비에 전시된다. /김경민기자 kki@

since 1982

창업 30주년 **국제보청기**

국제 보청기의 정성은  
고객 만족입니다

☞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謹賀新年 www.kjhr.com

국제보청기 독일 한사톤(HANSATON) 정품만 취급합니다.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 광주↔목포항 셔틀버스 매일 운항

매일 광주에서 출발하는 셔틀버스로 목포항까지 편안하게~  
국내최대 씨스타크루즈호 타고 제주까지 안전하게~ 3만원으로 떠나세요.

### 셔틀버스+씨스타크루즈호 = 30,000원

광주출발 06:40 광천터미널 맞은편 목포출발 21:30 여객터미널 주차장  
※1인 편도요금이며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씨월드 고속훼리(주) 우수대리점. 제주배닷컴 www.jejube.com 1644-2261**

## 광주출도착 제주도 2박3일 139,000원

1일자	도두봉 트래킹, 용두암 용연, 노을언덕 무인카페
2일자	오설록, 생각하는 정원, 서커스월드, (현지직물) 서귀포유람선, 롯데호텔정원, 올레길
3일자	선녀와 나무꾼, (현지직물) 몽골리안마상쇼 or 매직쇼, 조랑말 승마체험, 제주허브동산

포함사항: 광주-목포 왕복 셔틀버스, 왕복선박료, TAX, 차량, 일반호텔(5-6인실), 입장료내 입장료, 식사(중식2회, 조식2회)  
불포함사항: 가이드 톨, 개인비용, 현지작품관람, 자유석식  
금, 토 출발시 20,000원 추가 / 2인실 이용시 30,000원 추가  
2월28일까지 적용됩니다.(설연휴기간 3만원추가)

## 전국립광주박물관 김정현 학예사님과 함께하는 재미있는 역사여행

일정	2013년 2월 16일(토)~2월 17일(일)
지역	군산 전주 지역
강사	김정현 선생님 (협동조합 '상상창작소 봄' 대표)
목적	한국역사의 바른 이해 재미있는 한국역사와 문화의 재발견
금액	목포 이마트출발 14만원 광주 문예회관 후문 앞 출발 13만원

캡트 포함사항: 차량비, 한옥마을 숙박비 4인실기준  
(3인실 9,000원 / 2인실 25,000원추가)  
관광지 입장료, 식사 4식, 자료집

예/약/문의: 1588-3925